

꼭지명 : 월요 철강 시황 리포트 (8) (19.9.30)

1. 주간 철강 시황 이슈 종합 : ‘극일(克日)’, 벤치마킹부터 해라
2. 주간 철강 시황 분석 종합 : 철강재...(국내) 약세 지속
(중국) 감산불구 가격상승 동력 부족
3. 업계 주요 이슈 포커스 : 포스코 계측된 'POSCO SS VINA' 매각 검토
4. 업계/수요/경제 주요 뉴스 : 4분기 철강 수출시장 ‘먹구름’...원가 상승, 해외시장 부진 ‘악재’
5. 금주의 자료 : 1) 인도네시아 정부, 니켈광석 수출 중단 조기 시행 발표 - (출처 : 무역협회, 19.9.23)
2) 진퇴양난에 빠진 Tata Steel, 인도시장 집중 전략에 차질
(출처 : 포스코경영연구원, 19.9.25)
3) 중국 경제 70년사와 향후 예상 진로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 브리프, 19.9.30)

1. 주간 철강 시황 이슈 종합 : ‘극일(克日)’, 벤치마킹부터 해라

극일(克日)이 요즘 화두다.

일본은 우리에게 있어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애증(愛憎)의 관계다. 사람과 문명이 한반도를 통해 일본 열도로 적지 않은 이주가 이뤄졌다. 특히 3국 시대 난민(難民)의 피신처가 바로 일본이었다. 그들의 지배집단이 백제, 고구려 유민이라는 학설은 일본인들이 믿고 싶지 않아도 사실이다. 철기문화도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고려, 조선 시대에 걸쳐 왜구(倭寇)의 침입은 물론 임진왜란은 엄청난 시련이었다. 특히 일제 36년 강점은 우리에게 치욕이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의 착취와 민족정기 말살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어 정치경제적으로 그들과의 협력과 공생은 불가피한 일이 되었다.

철강산업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다. 역사적으로 철강산업의 특성상 상공정 기술과 투자는 좀처럼 해외 이전의 사례가 없었다. 하지만 거의 유일한 예외가 우리의 첫 일관제철소 건설이다. 그만큼 철강산업의 경우 일본과의 관계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철강 역시 ‘극일(克日)’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세계 철강산업을 한중일 3국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양의 중국, 질의 일본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지속생존은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다.

하지만 일본 철강의 움직임은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미래지향적이고 글로벌화도 충분하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극일은커녕 그들을 넘어선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지속적인 구조조정, 끊임없는 기술과 제품 개발, 무엇보다 지극히 협력적인 정부와 업계 간의 관계는 안정적인 내외부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는 물론 세계 각 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최후의 지구촌 성장 지역으로 불리는 아프리카에도 그들은 이미 엄청난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구호는 있지만 계획과 실행은 부족하다. 특히 내외부 생태계의 불건전성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거기다 정부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걸림돌이다.

이래서는 ‘극일’은 요원한 일이다. 일본 철강산업이 잘하는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 그것부터가 시작이 되어야 할 일이다.

2. 주간 철강 시황 분석 종합

*WSD...12월 가격 전망 긍정적 25%, 부정적 50%

철광석...中 국경절 감산 '약세' (9.1~27 평균 92.4달러)

철스크랩...4분기 약세 국면 대세 (저점 의견 주목)

철강재...(국내) 약세 지속

(중국) 감산불구 가격상승 동력 부족

◆ (참고) WSD 가격전망 (9.13) 보고서

WSD 철강 및 원료 가격 전망

단위 : 달러/톤

품목	2019년				2019년 12월		9월 대비 변동폭		2020년 3월	
	1월	7월	8월	9월	부정적 (50%)	긍정적 (25%)	부정적 (20%)	긍정적 (60%)	긍정적 (35%)	호황 (10%)
열연강판										
World export market (FOB)	480	511	490	465	400	535	-14.0%	15.1%	520	660
China export (FOB)	465	520	480	464	400	530	-13.8%	14.2%	510	630
반제품										
빌릿 (FOB Black Sea)	408	422	410	380	345	450	-9.2%	18.4%	430	580
슬래브 (FOB Black Sea)	405	410	407	403	350	450	-13.2%	11.7%	440	600
철광석 및 원료탄										
Iron Ore sinter feed (to China)	76	119	90	95	75	105	-21.1%	10.5%	70	120
Coking coal spot (FOB Australia)	194	172	160	147	130	160	-11.6%	8.8%	170	200
철스크랩(고철)										
80/20 HM to Turkey	287	293	285	241	200	280	-17.0%	16.2%	300	410

◆ 철광석 中 국경절 감산 '약세' (9/1~27 평균 92.4달러)

1. 철광석 가격 약보합 27일 기준 91.0달러(CFR)

- 일주일 전 20일 대비 보합...24일 89.0달러까지 하락 후 회복
- 9월 1~27일 평균 92.4달러...8월 평균 90.6달러에서 소폭 상승 ※ 7월 평균 120.1달러

* 원료탄(강점결탄) 가격 약세 지속

- 27일 253.6달러 전주 대비 0.9% 하락...9월 초 169.3달러서 9.3% 하락



2. 중국의 국경철 감산 강화로 약세

- 산둥성 5개 공장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15%에서 최대 100% 감산명령
- 하북성 24일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고로 소결 50% 축소
- * 하북성은 당초 산둥성과 같은 기간 50% 감산명령에서 겨울철 감산 조기시행으로 전환
일각에서는 중국이 감산에 대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는 지적도 나옴.
- * 감산 시작인 23일부터 일주일간 하북성 산둥성 고로 감산량은 선철 기준 하루 약 36.5만톤으로
총 254만톤으로 추정(플래츠)

3. 45개 항구 수입 철광석 1억2300만톤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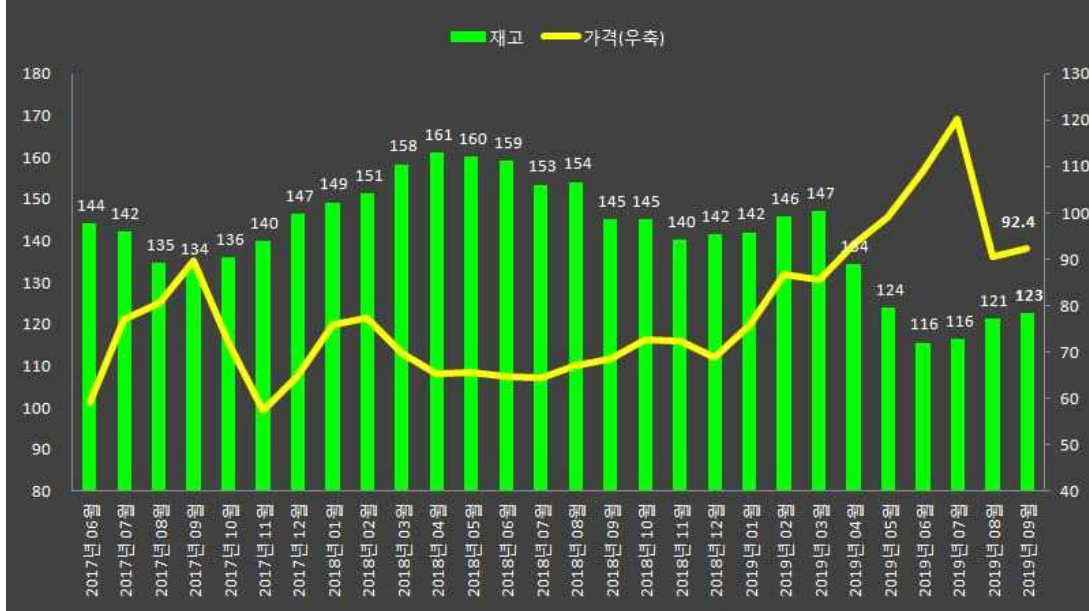
- 27일 기준 45개 항구의 수입 철광석 재고는 1억2300만톤으로 전주와 동일
- 중국의 감산은 이번 주(10월4일)까지 계속.
- 중국의 철광석 공급 부족감은 크지 않을 것.
- * 추후 겨울철 감산(10월말 시작)으로 철광석 수요는 예전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
- * 철광석 가격은 연말까지 70달러대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 * 현재 100달러대 회복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점쳐지고 있음

중국의 월별 조강생산량 및 45개 항구 수입철광석 재고



<참고> 중국
45개 항구의 수입
철광석 재고 및 월
평균 가격 추이

중국의 수입 철광석(Fe62%) 가격 및 항구재고



◆ 철스크랩 4분기 약세 국면 대세...저점의견 주목

1. 동국제강 감산 결정의 상징적 의미

* [동국제강 인천 입고 관련 공지]

당사 생산 계획 변경에 따라 10월1일(화) ~ 10월5일(토) 철스크랩 전 등급 입고 통제

<세부내용>

- 인천 120톤 전기로 4일/100톤 전기로 3일
- 인천 1호 압연 6일간/2호기 4일간 휴동
- 포항 당초 휴동 계획 8일에서 11일로 연장

<의미>

- 전기로 제강사 판매부진으로 철근 재고 적정수준 이상.
 - 추가적인 가격하락 수익성 등 고려 수급 조절 추세 이어질 것으로 관측
 - 국내 철스크랩 가격 일본에 비해 고가 형성 판단.
- ⇒ 원가절감 위한 국내 가격 인하로 연결.

※ 최근 철스크랩 단가 인하 조치

- 현대제철 포항공장 단가 인하 공지 : 9월27일(금)부 전 등급 10원/kg 인하
- 한국철강 : 9월28일 전 품목 10원 인하
- 대한제강 9월 28일부터 전 등급 10원 인하
- 태웅 철스크랩 구매 단가 공지 안내 : 9/28(토) 생철류, 중량류 5원 인하
- (주)YK스틸 : 9월27일 가격 10원 인하/대상 : 전 등급

2. 대형모선 철스크랩 터키 수입 기준 220달러대(CFR) *HMS No.1&2(8:2) 기준

- 터키의 철근 시장 부진은 철스크랩 가격의 하락세에 지속적인 영향
 - 미국 동부지역 터키향 수출 가격은 HMS No.1&2(8:2) 기준, 226달러, 슈레디드 238달러, 보너스등급 236달러 성약. 이전보다 6달러 추가 하락
 - 베트남향 오퍼 가격은 HMS No.1&2(8:2) 255달러 수준
 - 앞서 9월 현대제철/동국제강 성약 가격은 280달러.
- * 한국에서는 250~260달러까지 성약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3. 철스크랩 가격 저점 도달은 언제?

- 철스크랩 가격 하락은 대세로 인식되고 있지만 저점에는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견
 - 11월부터 철스크랩 발생 및 물동량 감소. 무엇보다 현재 터키 220달러대의 가격은 바닥으로 평가
 - 최근 4년간 터키의 미국 대형모선(HMS No.1&2) 수입 가격은 2016년 10월 210달러가 저점. 당시 철근 수출 가격은 363달러.
- * 현재 철스크랩 220달러/철근 450달러로 철근에 비해 철스크랩이 현저히 낮은 상황.
- * 철스크랩 가격은 미국에서부터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 200달러 붕괴 시 글로벌 제품 시장의 혼돈 속에 빠질 전망. 하지만 가능성은 낮게 점쳐짐
- * 터키의 철스크랩 수입가격 저점 당시 철근 수출 가격
- 2017년 2월 228달러(철근 390달러).
 - 2018년 3월 297달러(590달러).
 - 2019년 1월 278달러(478달러)

<참고> S&P Global Platts Asia Scrap Heards (27 Sep)

S&P Global Platts Asia Scrap Heards (27 Sep)

Deals

- + Cont/ US/ 80:20/ \$230/ CFR TW/ 5kt (wed)
- + Cont/ US/ 80:20/ \$230/ CFR TW/ 3kt (wed)
- + Cont/ US/ 80:20/ \$230/ CFR TW/ 1kt (tue)
- + Cont/ HK/ HMS I/ \$275/ CFR JKT/ 0.5kt (fri)
- + Cont/ HK/ HMS I/ \$280/ CFR JKT/ 1kt (wed)

- + Cont/ Eur/ Bushl. bund/ \$280/ CFR SUB/ 0.75kt (wed/thu)
- + Cont/ UK/ Bushl. bund/ \$277/ CFR JKT/ 2kt (wed/thu)
- + Cont/ US/ bushl./ \$268/ CFR JKT/ 1kt (wed)
- + Cont/ US/ bushl./ \$260/ CFR JKT/ 1kt (fri)
- + Cont/ US/ shred/ \$258/ CFR JKT/ 1kt (wed/thu)
- + Cont/ Eur/ shred/ \$248/ CFR SUB/ 0.75kt (wed/thu)
- + Cont/ Eur/ shred/ \$250/ CFR India/ 5kt (wed/thu)
- + Cont/ Eur/ shred/ \$250/ CFR India/ 1kt (wed/thu)
- + Cont/ Eur/ shred/ \$255/ CFR Pakistan/ 2kt (wed/thu)
- + Cont/ HK/ rebar bund/ \$286/ CFR JKT/ 1kt (mon)

Offers

- + Bulk/ JP/ H1:H2/ \$250/ CFR TW
- + Cont/ US/ 80:20/ \$230-235/ CFR TW
- + Cont/ Aus/ 80:20/ \$248/ CFR JKT
- + Cont/ S.Ame/ 80:20/ \$248/ CFR JKT

Bids

- + Bulk/ JP/ H2/ ¥24,000/ FOB (thu)
- + Cont/ JP/ Bushl/ \$290/ CFR JKT
- + Cont/ UK/ Bush/ \$290/ CFR JKT

4. 일본산 현대제철/동경제철의 장기적 인하

- 현대제철 26일 일본산 수입입찰 결과 : H2 2만4000엔(FOB), H1(5:5) 2만4500엔/H1 2만5000엔/SD 및 HS 2만7000엔/SB 및 SB프레스 2만7500엔
- 9월 매주 연속 수입입찰 실시. 최근 2주 연속 1000엔씩 인하
- * 일시에 큰 폭을 인하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장기간 인하하려는 성격을 나타냄.
- * 동경제철은 현대제철의 수입 움직임에 맞춰 인하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

※ 현대제철과 동경제철의 올해 철스크랩 가격조정의 특징.

현대제철과 동경제철은 올해 각 지역 공장에 따라 인하시점을 서로 다르게 결정하는 것이 특징.

장기적/단계적 인하를 단행하면서 물량확보와 지속적인 원가절감(국내 구매 가격 인하)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

◆ 국내 철강 시장 (약세지속)

1. 한국향 오퍼 동향 (CFR 기준)

<판재류>

- 본계강철 24일 오퍼 : 열연 498달러/PO 523달러/냉연 528달러 <보합> GI 593달러(15달러 하락)

※ 원/달러 환율 : 1194.40원

- 대만 상첸 25일 오퍼

열연 11월 선적

1) Commodity : Hot rolled steel sheet in Coil

2) Spec/Grade : JIS G3101 SS400

3) Size / Q'ty / Price : 1.9mm 기준 \$480 CFR

4) Shipment : Nov., 2019

5) Destination : Incheon, Korea

- 후판 오퍼 : 잉커우 488달러, 산동강철 488달러

(생산 두께 : 16~70mm / 재질 : SS400 / S35C&45C (10~90mm) / SM490A)

<봉형강류>

- 사강 9월 오퍼 500달러(10mm)/490(13mm 이상)

→ 성약가격 488달러/478달러 1만톤 성약 ※ 500강종 10mm +20달러, 기타 +10달러

- 용강 9월 오퍼 base 480달러(10mm),

→ 성약가격 472달러/462달러 2만8천톤 성약

2. 국내 유통가격 약세 지속

1. 포스코산 수입대응재(GS)

- 열연 : 67만원/후판 66만원/중국산 65만원 *현대제철 열연 68만원

→ 포스코는 대응재 가격을 이번 주(10.4)까지 열연 62만원으로 이전보다 1.5만원 인하

→ 후판의 경우 동결(별도의 가격조정 통보 없음) 64.5만원으로 유지

* 판매점들의 열연 판매는 적자를 면하는 수준

* 후판은 시장과의 괴리가 매우 큼. 주문 넣는 즉시 적자

※ 포스코에 대한 부정적 인식확산

포스코는 작년까지만 해도 공급 가격이 시세보다 고가에 형성되고, 판매점들의 손익상황이 좋지 않으면 일부 보 존을 해줬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없다고.

판매점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판매점들의 상황과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 확산

2. 철근

- 국산 철근 : 64.5만원
- 일본산 : 62~62.5만원
- 중국 및 대만산 : 61.5~62만원

→ 하락 계속 관측 多, 수요부진으로 부정적 의견.

* 제강사들의 감산이 반등을 견인할 가능성은 낮게 보는 의견 多

3. 앵글 채널

- 국산 : 76만원 / 수입산 앵글 63만원, 채널 65만원

* 앵글 9월 마지막 주 오피 가격 : 중국 성차이 기준 앵글 457달러, 채널 462~467달러

→ 오피 가격은 이전보다 8달러나 하락. 유통 가격은 국산 수입산 모두 추가 하락 전망 多

4. 형강

- 국산 : 77만원
- 포스코베트남 : 75만원
- 바레인 및 일본산 : 73만원
- 중국산 : 71만원

→ 가격 급락세 지속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 정보(9.26 기준)

품목	거래소	인도월	단위	가격	등락폭	등락율	주기
두바이유	싱가포르(FOB)	현물	USD/bbl	61.73	▲0.16	0.26	일간
액화천연가스	한국 수입가(CIF)	현물	USD/ton	478.21	▼10.96	-2.04	월간
전력용 연료탄 (6,300kcal/kg)	호주뉴캐슬(FOB)	현물	USD/ton	62.95	▲0.51	0.82	주간
고철 생철	한국 서울(도매가)	현물	KRW/ton	335,000	-	-	월간
철광석 Fines	중국(수입가 CFR)	현물	USD/ton	90.34	▼1.49	-0.54	일간
열연코일 3.0x4x8mm	한국(도매가)	현물	KRW/ton	713,200	-	-	월간
제철용 원료탄 Hard	동호주 항구(FOB)	현물	USD/ton	134.6	▲6.41	5	일간
전기동	LME	현물	USD/ton	5,757.0	▲38.5	0.67	일간
알루미늄	LME	현물	USD/ton	1,724.0	▼12	-0.69	일간
니켈	LME	현물	USD/ton	17,365	▲170	0.99	일간
아연	LME	현물	USD/ton	2,338.0	▲49.5	2.16	일간
납	LME	현물	USD/ton	2,109.0	▲41.5	2.01	일간

◆ 중국 철강 현황 : 감산불구 가격상승 동력부족

※ 상해선물거래소 열연 철근 하락세

- 27일 기준 내년 1월 인도분 철근 거래 가격 톤당 3437위안, 열연 3443위안
- 전주 마감일(20일) 대비 49위안, 43위안 상승 (23일 급등 영향. 이후는 하락세)
- 감산발표 직후인 23일 철근 열연 122위안, 109위안 급등 이후 하락세
- 열연은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연속 하락세. 철근 26~27일 하락세

1. 상해 내수 가격 동향 (9.27 기준)

- 열연 3690위안 철근 3760위안. 전주 대비 10위안, 80위안 상승
- 선물시장과 같이 열연은 23~24일 반짝 상승 이후 25일부터 27일 하락세

2. 수출입 가격

- 중국 오피 가격 천진항 FOB 기준 열연 480달러 철근 480달러 포함
- * 동남아 실재 성약 가격은 450달러 이하로 내려감. 인도의 저가공세가 눈에 띈
- 중국의 오피 가격은 표면가격의 의미가 강함. 중국 밀(mill)들은 추후 감산 이슈도 있고, 현재 시장부진을 감안, 가격을 내려도 수요가 늘어날 기대가 없다는 판단으로 대외 공표용 오피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아시아 수입 가격 CFR 기준 열연 평균 460달러 철근 440달러로 평가
- 약세는 계속 지속될 것이란 평가

3. 철근 유통재고 1월 이후 최저수준 *추가하락 저항선 도달 관측

- 27일 기준 중국 유통재고 철근 702만톤(마이스틸 집계기준). 1월 말 641만톤 이후 최저
- 열연(240만톤), 선재(152만톤), 중후판(102만톤)
- * 열연 중후판 소폭 증가전환. 선재는 철근과 같이 감소세 지속

3. 업계 주요 이슈 포커스

◆ 포스코 계류된 'POSCO SS VINA' 매각 검토

포스코 베트남SS비나 일본계 철강사에 지분매각 검토
SS비나 투자이후 4년 연속 손실...자본잠식 '수혈 불가피'
포스코 베트남 형강 수입, 제강사와 갈등 '한발 물러설 수 있어'
일본 철강사 지분 참여 시, 봉형강 무경험 포스코에 긍정적
포스코 올 하반기 동국제강 출신 인사 공장장에 발령
현재 포스코인터 고철 구매대행 일본계로 전환 시 '조달 유리'

포스코가 베트남 봉형강 생산 현지 법인인 'POSCO SS VINA(이하 SS비나)' 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포스코는 "매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 같은 소문은 아직 '매각설'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9월 초 한국-일본 간 무역업체 사이에서 국내로 번진 매각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로 제강 업계 고위 관계자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현실 가능성을 더한다.

포스코의 경우 지난 7월 2분기 컨퍼런스콜에서 “SS비나는 당초 계획보다 고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하반기 사업 구조조정을 포함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기상으로 여러 각도에서 검토한 내용들 중 몇 가지 유력한 방안이 추려지는 단계다.

◆ 일본계 철강사 SS비나 지분 일부 인수…포스코는 경영권 유지

업계에 나온 매각설을 정리해 보면, 일본계 철강사가 SS비나에 지분을 투자하고, 포스코는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매각 대상은 야마토스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야마토스틸은 YK스틸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해외진출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베트남이 성장 잠재력으로는 최대 꼽힌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일본 최대 기업인 일본제철도 그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평가다.

◆ 포스코 지분 매각시 SS비나 관련 부담 해소

진위 여부를 떠나 SS비나의 매각은 포스코 및 일본계 철강사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포스코는 SS비나를 둘러싼 부정적 현실을 타개할 수 있다. 일본계 철강사는 고성장 지역인 베트남에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다. 양측 모두는 기술측면, 원료인 고철 수급 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평가다.

포스코는 우선 SS비나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SS비나는 투자 이후 매년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자본은 잠식상태다.

연도별 손실을 보면, 2015년 당기순손실 규모는 1140억원, 2016년은 752억원이었다. 2017년과 2018년은 551억원, 525억원에 달했다. 자본금은 2018년 기준, -339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며 부채는 8489억원에 달한다.

수익성 개선이 단기간 내 힘들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지속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해서는 자금수혈이 불가피한 상태다.

또 SS비나가 한국에 H형강 등을 수출한다는 점은 업계 갈등의 원인이 된다. SS비나는 철근과 H형강은 연간 50만톤, 70만톤 생산한다. H형강을 중심으로 절반은 한국으로 수출한다. 제강업계는 공급과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위 기업인 포스코가 되레 수입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제철 동국제강은 SS비나에 대해 반덤핑 제소까지 검토했다.

포스코는 포스코건설이 필요한 소재로 수입을 국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나 H형강의 경우 이미 시장의 한 지표가 될 만큼 시세로 자리를 잡았다. 현재 국산 H형강 거래 가격은 77만원, SS비나의 제품은 2만원 낮은 75만원에 형성돼 있다.

지분 매각 시 포스코는 SS비나에 자금수혈이 가능하고, 수출 당사자를 일본계 철강사로 대체할 수도 있어 분쟁에서 한걸음 물러날 여력도 생기는 셈이다.

SS비나가 정상화되고 성장궤도에 안정적으로 오를 경우, 지분 일부를 매각하더라도 경영권을 유지한다는 전제라면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만약 SS비나의 부진이 계속된다면 지분 전체를 매각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 日 철강사 베트남 거점 마련 매력적…고철수급 생산기술 ‘SS비나’에 도움

일본계 철강사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다. 텃밭인 동남아 시장, 특히 고성장이 기대되는 베트남 시장 진입이 용이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베트남에 진출하지 못한 일본 제강사들은 동남아 진출의지가 높다고 평가, SS지분 매입에 따른 판로 확보는 이점이 크다는 평가를 내린다. 일본이 동경올림픽 특수이 종료된 이후 급격한 부진에 빠진 상태라는 점은 해외 진출과 확대를 위한 의지를 더 높이는 배경이다.

일본 철강사가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면 생산과 관련한 시너지도 있다. 포스코가 봉형강 분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술, 생산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올 하반기 SS비나의 공장장에 동국제강 출신을

발탁했다. 생산부문의 전문가가 필요했던 셈이다.

또 원료인 고철 수급에도 긍정적인 것이란 평가다.

SS비나의 고철 수입 등의 구매조달은 포스코인터내셔널(구 포스코대우)가 담당하고 있다. 해외법인의 구매를 한국 계열사가 맡는다는 자체가 한계라는 지적이다. 실제 그간 SS비나의 고철 수입은 비교적 고가(高價)에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는 진단도 내려지고 있다.

한편 포스코는 2014년 포스코특수강(현 세아특수강)을 세아그룹에 매각할 당시, SS비나도 그 대상에 함께 올려놨다.

4. 업계/수요/경제 주요 뉴스

1) 업계 뉴스

- 4분기 철강 수출시장 ‘먹구름’…원가 상승, 해외시장 부진 ‘악재’
- 포스코-현대중공업 LNG선 소재 국산화 추진…18만톤급 LNG 추진선용 연료탱크 ‘9% 니켈강’ 적용
- 삼강엠앤티 글로벌 기업과 잇단 계약 체결, 10분기만 영업흑자 전환
- 포스코 '전국장애인아이스하키대회'에서 공로 인정받아 대통령표창 수상
- 현대비엔지스틸 사업 다각화 (자동차 실린더블록용) 사형코어 제조 ‘친환경’ 당진공장 준공
- 포스코 '고급'에 '고기능'을 더하다…해외특허 급증세
- 철강자원협회 29주년 기념...남호 디엠에스 경원스틸 등 표창
- 바오우그룹 계열 악성강철 150만톤 전기로공장 건설
- KG동부제철 거래재개 후 시총 434계단 '깡충'

2) 수요/연관 뉴스

- 삼성중, 세계 최초 연료전지 원유운반선 개발...효율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 낮춰
- 현대자동차-스위스 'H2 Energy' 합작법인 출범, 유럽 친환경차 시장 공략
- 영국 자동차업체들 브렉시트 예정일 전후 공장 가동 중단 결정
- 현대ENG, 솔로몬제도 1억6500만달러 규모 수력발전소 수주
- 대형 벌크선 용선료, 환경규제로 상승세 지속
-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57.1조...전년 동기비 5.7% 증가
-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과 스마트선박 기술 공동연구
- 현대차, 인도서 90여개국에 수출 판매... 인도 자동차 업계 '1위' 축하 행사 개최
- 韓, 美에 자동차 관세 제외, 日수출규제 해결 지지 요청
- GM 군산공장 인수한 명신, 2021년부터 SUV 전기차 5만대 생산

3) 경제/산업 뉴스

- 27일 환율 마감 : 원/달러 1199.9원 (전일 대비 ↑1.1원) 원/100엔 1113.54원(↓.22원)
- 이란 산 원유 운송 中기업... 트럼프 행정부, 추가제재
- 8월 수출물량지수 전년 동월 대비 5.8% 하락, 수입물량지수 1.5% 상승
-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 150.1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
- 중국 8월 공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2% 하락
- 산업통상자원부, 인도에 철강·화학 반덤핑 조사 공정성 유지 요청
- 9월중 소비자심리지수(CCSI) 96.9로 전월대비 4.4p 상승
-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2.0%...예상 부합

● 주요 경제지표 (9. 27. 17시30분 현재, 자료 : 기획재정부)

[환율]	'17말	'18말	'19.8말	9.25	9.26	9.27	전일비	18말비
₩/US\$	1,070.50	1,115.70	1,211.20	1,198.80	1,198.80	1,199.90	0.09	7.55
선물환(NDF,1월물)	1,070.00	1,114.90	1,210.50	1,197.90	1,197.90	1,199.41	0.13	7.58
₩/CNY	163.9	162.79	169.65	168.3	168.07	168.27	0.12	3.37
₩/Y100	949.28	1,008.86	1,138.99	1,116.93	1,113.92	1,113.70	△0.02	10.39
Y/US\$	112.77	110.59	106.34	107.33	107.62	107.74	0.11	△2.58
US\$/EUR	1.1927	1.1455	1.1035	1.0994	1.095	1.0912	△0.35	△4.74
CNY/US\$	6.5426	6.8522	7.1539	7.1159	7.128	7.1353	0.1	4.13

* '18년 평균 환율: (₩/US\$) 1100.6원, (₩/¥100) 992.6원

* '19년 평균 환율('19.1.1~현재): (₩/US\$) 1162.7원, (₩/¥100) 1067.0원, 3시 30분 기준

[유가·곡물·원자재]	'17말	'18말	'19.8말	9.24	9.25	9.26	전일비	18말비
Dubai (\$/배럴)	64.33	52.86	59.62	63.46	61.57	61.73	0.26%	16.78%
WTI 선물 (\$/배럴)	60.42	45.33	55.1	57.29	56.49	56.41	△0.14%	24.44%

* '18년 평균 유가: (Dubai) 69.66\$, (WTI 선물) 64.89\$

* '19년 평균 유가('19.1.1~현재) (Dubai): 64.10\$, (WTI 선물): 57.10\$

[주가]	'17말	'18말	'19.8말	9.25	9.26	9.27	전일비	18말비
KOSPI	2,467.49	2,041.04	1,967.79	2,073.39	2,074.52	2,049.93	△1.19%	0.44%
거래대금(억원, 일평균)	42,744	41,207	37,095	44,067	51,819	46,568	△10.13%	-
KOSDAQ	798.42	675.65	610.55	626.76	628.42	626.93	△0.24%	△7.21%
외국인순매수 (억원)	1,409	2,730	2,528	△4,203	△317	△563	78	-

* 기간중: '17말('17.1.1~12.31), '18말('18.1.1~12.31)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5. 금주의 자료

1) 인도네시아 정부, 니켈광석 수출 중단 조기 시행 발표 - (출처 : 무역협회, 19.9.23)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2일 당초 예정보다 2년 빠른 2020년 1월부터 니켈광석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

*, 바로가기 :
file:///C:/Users/win10/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QW4M23TD/인니%20정부%20니켈%20광석%20수출%20중단%20조기%20시행%20발표(자카르타지부%200923).pdf

2) 진퇴양난에 빠진 Tata Steel, 인도시장 집중 전략에 차질 (출처 : 포스코경영연구원, 19.9.25)

- 인도 타타스틸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글로벌 전략에서 선회하여 Exit Plan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 바로가기 :
file:///C:/Users/win10/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LBTSZAE4/진퇴양난에%20빠진%20Tata%20Steel,%20인도시장%20집중%20전략에%20차질.pdf

3) 중국 경제 70년사와 향후 예상 진로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 브리프, 19.9.30)

- 10월 1일은 중국 건국 70주년을 맞는 국경절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반세기도 채 안돼 세계 2위의 경제대국, 벤처창업대국으로 성장했다. 중국 특파원을 지낸 경제부 기자의 시각으로 중국 경제 70년 변천사와 시사점을 짚어본다.

*, 바로가기 : [http://www.korcham.net/new_pdf/target/제106호-브리프\(中%20경제%2070년사와%20향후%20예상%20진로\).pdf](http://www.korcham.net/new_pdf/target/제106호-브리프(中%20경제%2070년사와%20향후%20예상%20진로).pdf)